

한국문화교류 소식

26호 2017년 12월 15일 발행·발행인 조남철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4173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20 근신빌딩 별관 201호 사무실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30, 711호(내수동, 세종로대우빌딩 복합동)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한류(韓流)와 재외동포



임 채 완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재외동포연구원 원장

한류(韓流)로 인한 문화콘텐츠와 소비재 및 관광 수출액을 추정한 결과, 2015년 한류로 인한 총 수출액은 70.5억 달러로 전년보다 2.4% 증가했다. 또한 2015년 한류의 생산유발효과는 15조 6,406억 원으로 전년대비 9.4% 증가했다. 이와 같이 한류는 불과 15년 전만 해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우

연한 현상’에서 지금은 정부와 기업, 문화계가 총출동해서 반드시 성공시키고자 하는 국가적 기획이 되었다.

한국인과 한국 정부가 이 ‘한류’ 현상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외국에서 인기를 얻었다는 단순한 만족감뿐만 아니라, 드라마, 가요, 댄스 등 대중문화 상품의 인기가 모바일 폰과 같은 한국의 공업 생산품의 수출량과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를 크게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류를 단순히 문화로 보기도 다 특정한 상품, 즉 “문화상품”으로 보고, 이를 직접 수출상품화하거나 한국 상품의 수출에 도움이 되게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한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고, 한류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더구나 한류처럼 다양한 형태의 상품과 대중문

진정한 한류는 쌍방향의 활발한 교류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높아지고,
공존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때 지속될 것이다.
타국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애정을 갖는 동시에
한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타국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와 동경으로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화가 이렇게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동시에 향유, 소비, 구매된 적은 거의 없었다. 특히 중국과 같이 더 강대한 나라에서 더 약소한 나라의 문화가 소비되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다. 또한 일본과 같이 더 부유한 나라에서 더 가난한 나라의 문화가 애용되고 소비되는 일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많은 한국인들이 한류 현상을 민족적 긍지로 생각하는 이유이다. 한류라는 말은 중국인들 사이에 한국의 대중음악이 유행하는 현상, 또는 그러한 음악의 유형을 뜻하는 어원을 가졌지만, 한류는 이제 대중음악을 넘어 TV 드라마, 영화, 연극, 공연, 패션, 음식, 게임, 애니메이션 등 한국문화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 외연이 확장되었다. 현재 미국 및 유럽, 남미 지역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한류 현상은 수천 년 역사 중에 처음으로 다가온 한국문화의 우수성이 대중적 문화산업의 한류를 타고 전 세계로 전파되어 가는 것이다. 한류 현상의 가장 긍정적 입장은 한류를 “세계인의 심성을 진하게 감동시킨… 한국적 심성과 정서, 그리고 문법이 담긴 문화”라고 하거나,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 확산을 보며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며, 한국 문화가 그 우수성 때문에 세계의 외국인들이 감동

하여 수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주의적 해석을 반대하는 입장은 한류를 “한국 문화의 승리”로 보아서 안 되며, 다소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이를 “아시아에 삶의 터전을 둔 문화작업자”를 살리고, “아시아적 문화 블록”을 형성하며, 더 나아가 세계와 소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류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한다면, 글로벌화가 진행될수록 740만 한민족 동포들을 묶는 일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재외동포는 한국의 민간 외교관이요, 수출의 역군이며, 한류의 전파자들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국제적 역량 강화에 740만 재외동포의 기여는 무시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재외동포의 경제력은 100조원 정도의 잠재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100조원은 한국 국가예산 약 300조의 1/3(10년 기준)이며, 인천시 경제규모(50조, '10년 기준)의 2배에 해당한다(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증가하는 유학생과 재외동포가 한류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 K-Pop 팬들은 한국 친구로 인해 K-Pop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유튜브 분석결과, 한국 아이돌 그룹 콘텐츠를 주로 소비하는 지역은 유학생과 재외동포가 많은 영어권과 중화권이 큰 비중 차지하고 있다. 재외동포는 한국 콘텐츠를 주로 PC를 통해 보고 있으나, 동영상 품질이 안정적이지 못해 고화질의 끊김 없는 영상을 TV로 보고 싶어 한다. 그들은 한국에 있을 때보다 한국 콘텐츠를 보기 힘든 환경이지만, 한국에 있을 때와 비슷하게 보거나 더 많이 보는 경우도 50%에 달한다.

한류 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의 토대 역시 양호한 편이다. 전 세계에 1,000여 곳이 넘는 대학에 한국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세종학당을 비롯하여 4,00여 곳의 공식, 비공식 기관이 한글과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중국의 250여 대학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몽골의 경우, 30여 개에 달하는 모든 대학에 한국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한국어 및 한글을 가르치는 초등학교도 적지 않다(재외동포신문). 한국어·한글·한류문화의 열풍은 2014년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한 외국인이 61개 나라에서 17만 명에 달하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것은 한글, 한국어, 한류문화에 대한 열기

를 보여주고 있다.

19세기 말과 20세기에 걸쳐 끓주린 백성이 되어 세계로 흩어진 740만 재외동포들은 이제 한글 및 한류문화를 전파하는 훌륭한 매개체가 되었다. 정부는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진 동포들이 발간하는 우리말 한글 신문을 더욱 책임 있게 후원하고 가꾸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해외 교육원 및 문화원, 주말 한글학교 및 한국학교, 교회 및 사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세계 속의 한민족 한류문화의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다.

결국 진정한 한류는 쌍방향의 활발한 교류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높아지고, 공존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때 지속될 것이다. 타국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애정을 갖는 동시에 한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타국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와 동경으로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상품, 기업, 문화, 사람 등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중동,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 <대장금> (이병훈 연출, 2003 ~ 2004) 대표적인 한류 콘텐츠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사진출처: iMBC.com)

캐나다의 복합문화 정책에 발맞춰 동포 꿈나무들의 뿌리 교육에 앞장



신 옥 연

캐나다한국학교연합회 회장

캐나다에 한글학교가 태동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6년,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던 캐나다 동부의 광역토론토 지역에 한글학교협회가 창립됐다. 당시 이 지역에는 22개 한글학교에서 60여명의 교사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대변하고 발전을 모색할 단체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이때만 해도 캐나다 전역을 통괄하는 협회는 없었다. 따라서 ‘캐나다한글학교협회’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다가 2009년에 캐나다 전역을 아우르는 캐나다한국학교연합회(CAKS)가 연방정부에 등록되면서 온타리오한국학교협회로 이름을 바꿨다.

2017년 현재 캐나다 전역에서는 120여 개 한글학교의 800여명 교사가 6000여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지역별로는 온타리오주(광역토론토, 해

밀턴 등), 서부(밴쿠버, 캘거리, 에드먼턴 등), 동부(몬트리올, 오타와 등)로 구분돼 있다.

특히 온타리오 지역에 80여 개의 한글학교가 몰려있는데, 다른 지역이나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온타리오주는 다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소수민족 언어 교육을 육성하고 있다. 이에 절반 가까이가 교육청 소속 한글학교들이다.

온타리오주 산하 교육청들에서는 자격을 갖춘 한글학교 교사들을 선발해 인건비, 장소(학교), 교구 등을 지원하며, 주정부의 교육제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글학교 수업을 고등학교 정규 과목의 학점으로도 인정한다. 현재 9개 교육청에서 14개의 한국어 학점반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 진학에 필요한 학점을 위해 한글학교에 다녀도 되는 것이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큰 장점 중의 하나다. 최근엔 한류 인기까지 더해져 한글학교 학점반에 외국계 학생들의 등록이 크게 늘고 있다.

보통 교육청 한글학교들은 평일 오후나 토요일 오전에 Elementary(초등) 또는 Secondary(중등) 학교 건물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아직까지는 종교단체 소속 한글학교가 일요일에 수업하는 편리성 등으로 인해 더 많은 편이다.

각 지역 한글학교협회는 유치반(JK, SK)에서 12학년(고3)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말잘하기’ 및 ‘글짓기’ 대회, 고등학생이 주축이 된 ‘I Love 한국어’, ‘한얼 꿈나무 문화마당’, ‘사생대회’, ‘여름 문

화체험 캠프, '문화교실' 등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이외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회', 친목 및 정보교환을 위한 '교사의 밤' 등을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 전역을 아우르는 캐나다한국학교연합회는 각 지역 교사들을 매년 한자리에 모이게 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술대회'를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최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부모를 초청해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을 알리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눈이 오나 비바람이 몰아치나 꾸준히 10년 넘게 자녀를 한글학교에 보낸 학부모들에게 감사하는 '자랑스런 학부모상' 등을 시상한다. 이외에도 한글학교 졸업생을 한인동포사회의 재목으로 키우기 위한 '차오름 교육생'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마치 푸른 들판에 피어나는 이름 모를 꽃들이 형형색색으로 모여 자연의 신비한 아름다움을 뽐

어내듯, 이곳 캐나다 내 한글학교들도 함께 모여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얼을 심어주며 조화롭게 성장 발전하고 있다.

캐나다 동포들은 비록 일상에 쫓기며 바쁘게 지내느라 자칫 한글교육에 소홀해지기 쉽지만 모두 그 중요성을 자각하고 있다. 우리의 한글 및 문화교육이 곧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임을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한글학교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캐나다 50년 이민역사와 함께해온 한글학교가 동포사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한글학교는 캐나다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뿌리교육을 위한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배움터가 되어 있다.

앞으로도 캐나다 한글학교들은 복합문화 정책에 발맞추어 동포 꿈나무들의 뿌리교육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캐나다한국학교연합회의 2017년 여름캠프 모습들





2017년, 세계태권도연맹 최고의 해



강석재

ICKC 운영위원, 세계태권도연맹 비서실장

전 세계 209개국 올림픽 스포츠 태권도를 관장하는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으로서는 2017년도가 경기 및 비경기 부문에서 연맹 역사상 '최고의 해'로 기록될 것이다.

경기 부문에서, 연맹은 지난 6월 24일부터 30일 까지 전라북도 무주에서 개최된 제23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여러 면에서 기록을 세우며, 연맹 44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세계대회를 치렀다.

무주 세계대회에, 전 세계 183개 국가와 1개 난민 팀이 참가하여 연맹 대회 역사상 최다 국가가 참여했고, 국가 원수로는 최초로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대회 폐막식에는 토마스 바흐(Thomas Bach)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연맹 세계대회 최초로 참가하는 등 총 10명의 IOC 위원이 세계대회 기간 중 무주 태

권도원을 방문했다.

또한 무주 세계대회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본부를 두고, 북한의 리용선 총재가 수장으로 있는 국제태권도연맹(ITF) 시범단이 무주 세계대회 개막식과 폐막식에 참가하여 세계태권도연맹(WT) 시범단과 합동 시범을 벌여, '하나된 태권도'(One World, One Taekwondo)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평화 축제였다.

무주 세계대회에서 총 30개 국가가 최소 1개 이상의 메달을 차지하여 세계선수권대회 역사상 가장 고른 메달 분포를 보여주었다. 2016년 리우올림픽에 이어 아프리카 국가의 태권도 약진도 눈에 띄었다.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차지한 코트디부아르(Cote d'Ivoire)는, 무주 대회에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최초로 첫 금메달을 가져갔다. 리우올림픽에서 은메달을 가져간 니제르(Niger)는 세계대회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러한 세계대회의 성공에 힘입어, IOC는 지난 9월 18일 태권도가 2024년 파리올림픽 핵심종목에 포함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서 태권도는 지난 2000년 시드니올림픽의 정식종목에 처음 들어간 이후, 2024년까지 7회 연속 올림픽 정식종목에 들어가게 되었다. 특히 태권도는 오는 2020년 동경올림픽에 하계올림픽 핵심종목으로서 뿐만 아니라, 장애인올림픽(Paralympic)에도 정식종목으로 처음 들어가게 되어, 올림픽 종목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다.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를 위해 지금까지 부단히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온 연맹은 성공적인 2020

년 동경올림픽을 위해, 경기 규칙 개정, 신소재를 사용한 태권도 경기복의 획기적 개선 및 박진감 넘치는 경기 장면을 보여줄 4D 카메라 사용 등을 계획하고 있다.

무주 세계선수권대회 이외에도, 2017년에는 다양한 태권도 대회가 열려, 국내외 언론과 일반 관중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 5월 그리스 로도스(Rhodes)에서 새로운 품새용 경기복을 선보인 제1회 월드태권도비치선수권대회가 성공리에 열렸다. 연맹은 2019년 미국 샌디에이고(San Diego)에서 열리는 제1회 세계비치대회에 태권도를 정식종목으로 넣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박진감 넘치는 태권도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맹은 지난 11월 23~24일 중국 우시(Wuxi)에서 2017년 월드태권도 그랜드슬램챔피언스시리즈(World Taekwondo Grand Slam Champions Series) 예선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총 상금 80만 달러가 걸린 2017 그랜드슬램챔피언스시리즈는 오는 12월 30일부터 1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5번에 걸쳐 올림픽 체급과 단체전 경기로 우시에서 열리게 된다. 올림픽 8개 체급 우승자는 각 7만

달러 상금을 코치와 7대3으로 분배하여 가져가게 된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19년 그랜드슬램대회에서 각 체급별 합산 점수 1위 선수에게는 IOC와 협의를 거쳐 2020년 도쿄올림픽 자동 출전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비경기 분야에서도, 세계태권도연맹은 2017년에 괄목할 만한 많은 성과를 일궈냈다.

세계태권도연맹 주도로 2016년 4월 15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스위스 로잔에 공식 출범시킨 태권도박애재단(Taekwondo Humanitarian Foundation, THF)이 연맹 ‘월드태권도케어스프로그램’(World Taekwondo Cares Program)과 함께 2017년 본격적인 활동을 펼쳤다.

요르단 아즈락(Aazraq) 시리아 난민촌에 ‘태권도 아카데미’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중국 자선단체인 ‘화민자선재단’의 재정 지원을 받아 빠르면 2018년 4월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연맹은 2016년 네팔 지진 피해자 지원 태권도 시범 사업에 이어, 네팔태권도협회와 함께 2017년에 고아원 태권도 무상 교육도 시작했다. 지난 8월 연맹이 ‘엄홍길휴먼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네팔 오지 학교에 태권도 무상 교육을 실시하



세계태권도연맹 조정원 총재(좌에서 다섯 번째)를 비롯한 연맹 관계자들의 UN난민기구(UNHCR) 방문 당시 모습.

기로 하였다.

연맹은 또한 최근 연맹 규약을 개정하여 연맹 보조 언어인 한국어, 불어, 스페인어를 영어와 함께 연맹 공용어로 포함시켰다. 이로서 각 국가협회의 태권도 교육 뿐 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의 기회도 넓어지게 되었다.

한편 아프리카 르완다(Rwanda)에서 난민 캠프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부티(Djibouti)와 에티오피아와 본격적인 난민 지원 사업을 추진 예정이며, 지난 11월 29일에는 국내 의료 단체인 KMP Corp. 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제 의료 봉사를 2018년부터 네팔, 요르단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연맹의 ‘태권도를 통한 세계평화 구현’의 진지한 노력을 인정받아, IOC는 지난 9월 페루 리마 총회에서 스위스 로잔에 ‘올림픽난민재단’ (Olympic Refugee Foundation, ORF) 설립을 공식 발표하고,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를 ORF 창립 이사로 임명했다. 이는 IOC 위원장이 조 총재에게 수여하는, IOC위원직에 버금가는 ‘큰 선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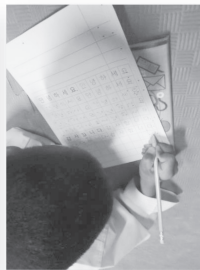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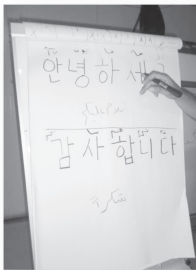
지난 12월 8일 IOC본부에서 총 6명으로 구성된 첫 ORF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창립 이사로는 IOC 위원장이 ORF 위원장을, 그리고 UN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가 부위원장을 맡고, 조 총재와 함께 유 자이칭(Yu Ziaqing) 중국 IOC 부위원장, 조안 빈 하마드 알타니(Joaan bin Hamad Al-Thani) 카타르 NOC위원장, 그리고 수단의 이치 푸르 비엘(Yiech Pur Biel) 난민 출신 육상 선수가 이사로 활동하게 되었다.

조 총재는 ORF 이사회를 통해 평소 꿈이었던 모든 올림픽 종목이 참여하는 ‘(올림픽)스포츠평화 봉사단’(Olympic Sport Peace Corps)의 발족을 실현하고자 한다.

연맹 최고의 해인 2017년에 이어 오는 2018년도 연맹은 진정한 ‘태권도 세계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8년 연맹 슬로건은 ‘평화는 개선보다 귀하다’(Peace is More Precious than Triumph)이다.



World Taekwondo Cares Program – Azraq Taekwondo Academy Project





한국어

한국어 꿈나무로 자란 태국의 ‘대장금 키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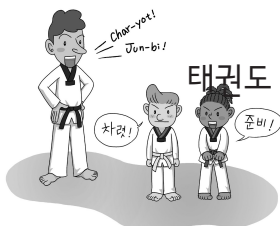
방콕에서 차로 30분가량 달리면 나오는 싸라위따야 학교. 중·고교생 3천700명이 공부하는 이 학교는 학년별로 12개의 전공반 가운데 한 반은 한국어반이다. 한국어반 학생들은 대부분 어릴 적 드라마 대장금 덕분에 자연스럽게 한류를 접한 ‘대장금 키즈’들이다. 드라마와 노래를 통해 한류가 확산하면서 한국어의 인기도 높아져 올해 한국어반 입학 경쟁률은 4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 수니싸 씨는 한국·태국 정부가 추진한 한국어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태국으로 돌아와 교사가 됐다. 한국어반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한국과 관련된 진로를 택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태국 한국교육원 윤소영 원장은 “한류의 인기가 주춤하더라도 한국어 교육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외국 교과서에 동해·독도에 대한 설명을 넣는 것만큼,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 학생들이 한국을 깊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어 교과서로 공부하는 태국 학생

출처_ 연합뉴스, 2017.10.15.



태권도

7회 연속 올림픽무대 서는 태권도…

2024년 파리서도 정식종목

우리나라 전통 무예인 태권도가 7회 연속 올림픽 무대에 오른다. 세계태권도연맹(WT)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으로부터 태권도가 2024년 프랑스 파리에 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확정됐다는 서신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태권도는 1994년 파리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처음 채택됐다. 이후 지난해 리우올림픽까지 5회 대회 연속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올림픽 핵심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2020년 도쿄 대회에서도 정식종목으로 치러질 태권도는 이번 IOC의 결정으로 2024년 파리 대회까지 7회 연속 올림픽 종목의 지위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전자호구를 도입해 공정한 판정 시스템을 구축한 2012년 런던올림픽에 이어 지난해 리우에서도 성공을 거듭함으로써 2024년 파리 대회에서도 정식종목으로 확정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IOC는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정식종목은 2021년 총회에서 정할 방침이다.



2016 리우올림픽 태권도 여자 67kg급 결승전 오혜리 선수의 경기 모습

출처_ 연합뉴스, 2017.09.18.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 고려인 대회 '함께 부르는 고려아리랑' 참석

ICKC는 지난 9월 17일(일), 재외동포재단, 동북아평화연대 등이 주최한 고려인 대회 “함께 부르는 고려아리랑”에 참석하였다.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본 대회는,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고려인 동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국내 거주 고려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및 여러 정계 인사들도 참석하여 성황리에 치러졌다. 강제이주 80주년 기념식, 고려아리랑 기념공연, 강제이주 역사체험, 연해주 독립운동사 참여 코너, 고려인 음식문화 체험, 장기자랑, 민속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으며, 참석한 약 20명의 ICKC 회원들 역시 기념 공연 등을 관람하며, 고려인 동포의 가슴 아픈 역사와 이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함께 실감하고 기념하였다.



■ 10월 문화탐방 실시 - 한강, 절두산성지 탐방

지난 10월 24일(화), 10월 문화탐방으로 한강 및 절두산 성지 코스를 탐방하였다. 본 탐방 코스는 “서울도보관광” 코스의 하나로, 문화해설사와 동행하며 우리 민족과 함께 한 한강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국 근대사의 첫머리에서 희생하고 활약했던 외국인 교육자, 선교사 묘역을 돌아보고, 절두산 성지를 탐방하며 우리의 역사와 종교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되새길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 되었다. 서울도보관광 코스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문화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코스가 마련되어 있으며, 일정 인원 이상이면 무료로 신청하고 관람할 수 있으니, 우리 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나들이 삼아 답사하기에 알맞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된다. 답사를 마친 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회원 간의 친목을 다지고 이후 해산하였다.



2017 후원하여 주신 분

2017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이 헛되지 않게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영광, 강재근, 구병진, 구철희, 김건길, 김명수, 김복음, 김성열, 김소진, 김영규, 김용구, 김용준, 김응철, 김정수, 김정복, 김정일, 김정택, 김제방, 김종익, 김진원, 김진태, 김호일, 류성식, 문영호, 박관용, 박경명, 박신재, 박용수, 박원철, 박익근, 배대환, 성효동, 심재익, 유영찬, 유자호, 윤윤식, 이대근, 이병욱, 이상철, 이석중, 이영섭, 이용선, 이정남, 이창걸, 이향구, 이현목, 장호익, 전영섭, 정상설, 정순영, 정영숙, 정진화, 정한관, 조두연, 조춘연, 조평규, 추호석, 최준영, 표재순, 홍계화, 황경애,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수풍산업(주), 신한금융지주, 제일E&S(주), (주)P&H (가나다순, 2017년 12월 5일 현재)

총액 : 66,450,000원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2011.03.30. 창립총회 개최
2011.08.16.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
2012.10.02. 지정 기부금 단체 지정(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66호)
2017.03.30. 총회 및 창립 6주년 포럼 개최

조직 구성

고문 강성구 前 MBC 사장
김길남 국제한민족연구재단 대표
김용구 (주)산동 회장
박갑수 前 ICKC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관용 前 국회의장, NDI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최불암 예술인

총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사장 조남철 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방송대 교수

부회장 김성진 前 한경대학교 총장
김재현 前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공주대학교 교수

운영위원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비서실장
김옥랑 꼭두박돌관 관장
박의근 재정위원장, (주)P&H 회장
서혁 연구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송종국 경희대학교 교수
이동민 한국IMS 대표
이종택 선진회계법인 대표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

감사 전영섭 변호사
박원출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ICKC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 안내

ICKC는 회원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ckc-seoul.net>입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단체의 공지사항 및 최근 활동 현황, 한국어·태권도 관련 주요 뉴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소식지 역시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ICKC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거나 ICKC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연락처는 본 소식지 1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66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법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해 100%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법인소득금액의 50%까지 전액 손금산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울사랑 송년음악회와 함께 하는
‘2017년 ICKC 송년회’

2017년 한해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ICKC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ICKC 송년회’는 ‘(사)마리소리음악연구원’의 송년음악회 행사와 함께 합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맛과 멋을 음미하며 2017년을 뜻 깊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무술년(戊戌年)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일 시_ 2017년 12월 28일(목), 오후 6시

•장 소_ 과천시민회관 2층 중식당 ‘홍샤오’(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 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5분)

※ 저녁 식사 후 공연 관람 ※

2017
어울사랑 송년음악회

Euulsarang Adieu 2017 Concert

일시 : 2017년 12월 28일(목) 저녁 7 : 30

장소 : 과천시민회관 소극장



주최.주관 : 어울사랑 / (사)마리소리음악연구원

후원 : ICKC(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문화유산국민신탁

협찬 : 나루다이텍, 마스트바이오, (주)편안택시, 고려이앤씨,
바이오펜글로벌, 여성의류 안지크, 교보생명대성지점,
건양치과, 하이파워텍(주), 뉴현대건설